

# 獨 스파이 제조기 엘스베트 슈라그뮐러



스파이 세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1940년 2월24일 독일 뮌헨의 한 아파트에서 52세의 여성이 골( 뼈) 결핵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프롤라인 닥터'(Fräulein Doktor·여성 박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뮌헨·크리스티안현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 그녀의 본명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등 연합군이 입수한 독일의 기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녀는 엘스베트 슈라그뮐러(Elsbeth Schragmüller)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설적인 스파이 양성기였다.

슈라그뮐러는 1887년 8월7일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슈워셀부르크(현 러시아 영토)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프로이센의 육군 장교였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후 1909~14년 독일 알베르트 루트비히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해 독일에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이 되었다. 졸업 후 그녀는 베를린의 레테페어라인에서 시민교육 강사로 일했다.

1차 대전이 발발하자 평소에 애국심이 남달랐던 그녀는 군에 지원했고,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에서 전투하기 위해 보병을 지원했으나 독일 점령지인 벨기에 브뤼셀의 군사우편물 검열사무소로 배치되었다. 상부에서 그녀가 여성이라 전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이다.

따분한 편지 검열 작업 중 그녀는 특정 편지들이 사전에 약정된 암호를 통해 정보



▲엘스베트 슈라그뮐러.  
◀1968년 슈라그뮐러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 '프롤라인 닥터(여박사)'의 포스터.

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그녀는 암호화된 군사 기밀을 적발하고 해독하는 기법을 개발해 전파했다.

이 공로로 그녀는 독일 참모본부 정보부대인 제3b대대에 전출되어 근무했고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1915년 안트베르펜 전쟁 정보부대의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곳은 군사정보원, 즉 스파이를 양성하는 정보교육 기관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기존의 스파이 교육 과정을 전면 개혁해 강도 높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정예 스파이가 양성되었다.

전설의 여(女)스파이로 불리는 '마타하리'(본지 스파이세계 제16회, 2024.4.23.일자)도 그녀에게 양성되었다. 정보요원들과 훈련생들 사이에서 슈라그뮐러는 '여박사님' '호랑이의 눈'으로 불렸다. 그녀는 때로는 늑은 청소부로 위장하는가 하면 여러 개의 위장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영국 정보기관에서도 '여박사'의 정체를 알기 위해 잠입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1918년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독일로 돌아왔고 중위 계급과 함께 '1급 철십자 훈

장'을 받았다. 그녀는 대학에 복귀해 프라이부르크 대학 최초의 여성 조교수가 되었다. 몇 년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뮌헨으로 이주하여 뮌헨 대학에서 강의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1934년 나치 독일에 의해 '장검의 밤(Night of the Long Knives)'이라 불리는 숙청 작업이 진행되면서 당시 마그데부르크 경찰서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와 군 고위 장교였던 오빠 콘라트는 암살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라그뮐러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무대에서 사라졌다.

1차 대전 중 그녀의 스파이 활동은 대중들에게 전설의 소재가 되어 그녀의 활동을 다룬 영화가 4편이나 개봉되었다. 슈타블 퀘스트(1934) '마드무아젤 닥터(1936)' '프롤라인 닥터(1968)' 등이 그것이다.

영화에선 그녀를 금발의 매력적인 스파이로 연출해 냈지만 이들 영화는 1945년 까지 연합군에 의해 슈라그뮐러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그녀의 삶 이야기는 대부분 모호하고 추측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에서 슈라그뮐러의 스파이 교육 기법을 원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그녀는 전설적인 스파이 제조기로 평가된다.

## 社說

### 국민의힘, 보수 정치철학 바르게 세우라

비록 21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민의힘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크고 무겁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립하고,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틀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 건설해야 집권층의 '독선'을 막고, 국민 신뢰 속에 집권도 가능할 터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망을 안기고 있다. 당 개혁 방안을 두고 제1야당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부당교체 진상조사 등 5대 개혁 방안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논쟁만 벌였을 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시급히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무기력증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5월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일방 처리할 때도 사실상 손을

내 놔 버렸다. 1월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만 해도 독소 조항을 조목 조목 비판했지만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그런데 친윤계와 친한계가 당권을 놓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어 당장 이재명정부 첫 인사청문회 대응도 벌써 '파장(罷場)' 분위기가.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서가 이번 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시간표를 고려하면, 새 원내 지도부의 청문회 준비 시간은 2주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이들이 적잖다는 현실이다. 차기 당권 경쟁에서 당내 이합집산과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면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빚대 '아사리판(무질서한 상태)'이라며 당이 대선 민심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당권 경

쟁에 몰두할 경우 '회생 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야겠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훈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특정 지역 정당'이란 국민의힘이 여전히 영남권, 특히 대구·경북(TK)을 핵심 기반으로 삼는 현주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이란 지적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한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지적을 당 쇄신에 반영할 것 기대한다.

이는 곧 국민이 염증을 내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는 일이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고 국민에게 내놓는 답상을 '업그레이트'하는 일이다.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

하지만 한국 보수 정당의 운용체계는 여전히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당무 처리와 관련에선 시스템 보다 리더의 지시와 의증이 우선이

고, 차기 지도자를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음은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사실 지금처럼 진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보수진영은 새로운 인물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길 바란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는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국민의힘은 고정 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 이념에 갇혀 사고하는 건 건전 보수의 자해 행위임을 직시하고 자정(自淨)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뼈아픈 대선 패배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계파를 가리지 말고 전면 쇄신을 단행하는 게 요청된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 재무 설계의 불편한 진실



바른 보험

김덕용  
카라멜에셋  
바른보험지점 대표

얼마 전 한 고객과 상담 중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봐 주는 과정에서 필자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고객이 약 1년 전 변액연금 상품에 매달 50만 원 10년 납입 조건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변액연금이 가입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미취학 자녀 셋을 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가 가입하기에는 다소 높은 금액의 상품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어떠한 현금 흐름을 가정해 이 상품을 장기로 가입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의외였다. 재무 설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추천받아 가입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상담을 받은 게 아니고 재무 설계라고 하니 왠지 신뢰가 가서 고민 끝에 가입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무 설계 상담을 해준 사람이 보험설계사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지난 15년 남짓 보험 영업을 하면서 필자가 의외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도 보험설계사가 예전보다는 좀 이미지가 나아지지 않았나요?" 라는 말이다. 그럼 반대로 묻는다. "만약 친한 친구한테서 아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보험설계사라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뚱한 표정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 사람이 뭔지 모를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보험 설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재무 설계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의 영업 방법이니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다. 문제는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상담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앞서 거론한 상담 사례의 경우도 재무 상담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보험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였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변액연금 상품 외에 가입하거나 추천받은 금융상품이 있냐고 물었더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ETF(상장지수펀드)와 일반 펀드 정도였다. 그렇다. 모두 투자 상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더해 50만 원의 변액연금 상품까지 가입한 것이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납입 운용에 대한 것 또한 고려해 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옵션이었다.

필자의 변액연금 관련 유튜브 영상을 접하고 변액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내외가 된 분들이 가입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액연금보험과 관련된 필수 질문에 대해 매번 안타까



운 답변을 똑같이 하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파생상품이나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상담을 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험설계를 위한 유인책으로 해당 자격증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암보험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연금보험도 보험 상품 중 하나이다. 또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물론 가입자의 투자 성향까지 고려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파생상품이다. 그런데 재무 설계라는 그럴싸한 프레임만 가지고 고객이 아닌 자신의 수익만 생각하는 상담을 하고 가입시키기에 급급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력 없는 지식의 대가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재무 설계라는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 '흙수저' 대통령에게 바라는 大통합



최문형의 만사만감  
萬事萬感

동양철학자·작가  
성균관대 교수

오래전 일이다. 운전하며 이동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지역단체장 선거유세 방송이 흘러나왔다. 중간부터 들었는데 차분한 목소리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가 쫑긋해졌다. 선거 유세라기보다는 정책을 알려 주는 선생님의 강의 같았다.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의 시간이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어서 동서남북 사방의 지역적 특성이 모두 다르다. 그는 이 특성에 따라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차분하고 세밀하게 알려 주었다. 인상적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신기한 방송이었다. 참으로 똑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에 별 관심없는 내가 일상의 일들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을 때 코로나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뒤흔쳤다. 그러자 바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방역을 위해 신천지 교회와 교주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고, 경기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34만 명을 전수 검사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의 조기 차단 사례이며

중앙 정부를 선도한 대응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방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무수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지런하고 똑똑하며 세심한 일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행정 일선에서 그가 보여준 결과가 증명한다. 그의 인생 또한 역경과 고난 극복의 연속이었다. 소위 금수저 아닌 흙수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통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심는 롤모델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고 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취약한 점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기 힘든 것이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부자는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횡재수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알뜰살뜰 살면서 재물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적 전통에는 '구휼'이 있다. 정부가 나선 구휼도 있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가 많다. 경주 최부자집의 일화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복지의 실행을 한국의 부자들은 실행해 왔다.

서구에만 기부문화가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의 기부는 티 안 나게 서서히 시냇물처럼 흘러 왔다. 뒤주에 찜겨 둔 쌀과 생선, 그리고 항상 열려 있는 숙소가 그것이다.

한국의 부자 문화에는 이웃의 삶을 돌보는 배려가 존재했다.

많은 이가 새 대통령에 대해 사회 통합을 바라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보니 이 통합의 큰 걸림돌 또한 경제적 빈부 격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선이 약자에게 향한다.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정말 반가운 말이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 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보낼 언급이다.

정치를 묻는 제자에게 인류의 대승 공자는 "군자는 자강하되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사사로이) 당을 짓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한자의 '군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례를 갖고 있다. 하나는 덕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도자를 일컫는 것이다. 유학의 지도자상이 '덕있는 지도자' 이므로 이 둘은 사실 한가지 의미이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된 지혜로운 지도자이다. 그가 만들어 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기대한다.